

# 주간기도정보

2024. 8. 27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김이라”

#### ‘성경의 신적 권위 세워 성혁명·차별금지법 막을 것’

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성수협), 20일 창립 예배 및 총회 개최



성경비평신학 등 이성을 중시하는 신학의 영향력을 배격하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세워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성수협)가 20일 창립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에서 창립 예배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는 성수협과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가 공동주최하고,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진평연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교계 각 교단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 평신도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명의 운

영위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성수협은 이날 창립 취지문에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1세기가 지나지 않은 17세기부터 진리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이 아닌 이성을 선택하는 성경비평 등 비성경적 신학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름으로 신학교에서 강의 되면서, 그 결과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 등 초자연적 기사를 부인하고 성경의 윤리적 교훈만 추종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아가 “기독교 선진국 국가들의 교회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면서 그 나라의 성도들도 성경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정당화하고, 성경적 진리조차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확산 운동을 막는 힘을 상실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지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통복음주의 신학이 뿌리내리고 지켜지는 은혜를 입었다. 특히 1950년대 초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조선신학교의 성경비평학 강의자에 대한 강의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고히 믿는 신앙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성혁명·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파 교단과 관계없이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해 강력히 반대해 올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교회 내부의 성경비평신학, 자유주의신학, 유물론적 진화론 등 다양한 거짓 학문들에 대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성수협)를 창립해 출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창립예배에서 이상원 교수는 “사역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이고, 반대로 사역자들이 성경 비평 등 이성의 잣대로만 성경을 비틀어 해석한다면 대한민국을 징계하실 것이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보고 동성애, 성혁명, 포스트모더니즘, 유물론 등 인간이 짜낸 지혜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자”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성수협이 창립 배경을 목회자와 신학자, 평신도 지도자를 망라해 반성경적 사조를 거부하고 한국교회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독교일보, 아이굿뉴스 종합).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사도행전 18:28)**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에스라 7:10)**

하나님,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받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이라 말하며 성경의 권위를 인간 수준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타협과 교만으로 성경을 훼손케 하는 사탄의 모든 악한 계락을 파하여 주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소서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선포하여 모든 거짓된 이론과 학문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성수협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와 같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증인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인도하는 목자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교회를 통해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밀수 막는 철조망 복구하는데 밀수꾼에게 자재 요청 ‘아이러니’**

**북중 국경지역에 수해복구 인력 투입해 놓고 탈북할까 봐 노심초사**



최근 발생한 수해로 북중 국경지역 경비 초소와 철조망 등 설치물이 크게 훼손되면서 탈북과 밀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설비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만, 자재 부족으로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달 초 평안북도 국경경비대에 홍수로 피해를 본 경비 초소와 쓰러진 철조망과 전봇대 등을 복구하는 작업에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국은 1차 복구는 9·9절(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까지, 2차 복구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완료하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평안북도 국경경비대는 1차 기한까지 무너진 초소를 다시 세우고 유실된 철조망과 전봇대 등을 원상복구, 2차 기한까지는 국경 지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통신선 등의 재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건물이나 설치를 다시 세우는 작업만이 아니라 통신 및 전력 설비까지 복구해야 한다. 지시에 따라 현재 평안북도 국경경비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수에 끌려져 유실된 철조망은 자재가 없어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른 시일 내 원상복구를 강조하면서도 국가적인 자재, 설비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에 국경경비대는 밀수업자들에게 자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밀수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 자재를 밀수업자들에게 요청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소식통은 “국가는 국경경비대와 밀수꾼들의 유착 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통제를 강화하지만 보다시피 자재 하나를 복구하는 데도 밀수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유착 관계를 근절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경경비대도 필요에 의해 밀수꾼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밀수를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며 “재수가 좋으면 밀수로 자재를 조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 자력갱생한 것으로 치하를 받는 것이고 재수가 없으면 밀수에 가담했다고 처벌받는 게 국경경비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지역에 수해 복구 인력을 투입해 놓고 이들이 흑역사 탈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국의 ‘탈북 포비아(공포증)’가 복구 인력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시 수해 피해 현장에 파견된 인력들은 과거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건설 노동자들로 현재 하루 다섯 차례의 인원 점검을 받고 있다.

소식통은 “이 사람들은 쿠웨이트나 로씨야(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다녀온 탕생(해외 파견 경력이 있는 노동자)들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인데 과도한 감시를 받으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연(국경)지대 주민들이 워낙 외국 영상물을 많이 보고 있고 이 지역에선 해외 정보를 접하기 쉽다보니 대외건설지도국이 마음을 못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시편 11:3-4)**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쉼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이사야 2:17,22)**

하나님, 북한 당국이 홍수로 피해를 본 국경지역의 빠른 복구를 강요하지만 정작 자체 공급과 지원은 없어 도리어 밑수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북한의 실정을 주께 고합니다. 탈북과 밀수에 대한 염려로 주민들을 감시와 통제로 구속하려 하는 북한 정권의 자고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코에 호흡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극한의 가난과 재난의 위기로 삶의 터가 무너진 북한 주민들의 인생을 주의 눈으로 통촉하시고 감찰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사 진정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로 값없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진리와 함께 사는 성령충만을 누리게 하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태아와 아이들 생명 살려내는 중**  
1.8만 건 출생정보 통보, 419건 위기임신 상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첫 달을 맞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그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첫 달 동안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 8,364건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통보되었으며, 하루 평균

약 600건에 이른다.

이로써 아동의 출생이 공적 체계에 기록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 한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기 임산부들은 심리적, 경제적, 건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1308 상담전화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맞춤형 상담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첫 달 동안 전국에서 41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16명의 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임산부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모님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직접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갔다. 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제안하고, 해당 시설에 연결시켜 줬다.

임산부 B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돼, 고민 끝에 출산해 아이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 상담원과 상의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과 그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전에는 놓칠 뻔했던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임산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이 제도들이 더욱 정착되어 많은 임산부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출애굽기 2:10)**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로마서 5:17)**

하나님, 최근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과 아이의 생명이 보호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제도들이 더욱 선하게 사용되어 많은 태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지혜를 더하소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땅에, 물에서 건짐 받은 모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주의 선한 손이 간섭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전파되어 보이지 않는 태아도 주님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된 부모와 교회의 간구로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원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다음세대로 세워주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